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할 드높은 열정

우리의 영원한 삶의 품

65번째 8월 15일이다. 강성대국건설사에 투기한 사연들이 편이어 펼쳐지는 가슴벅찬 시기. 더우기 당장 건설 65년과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앞두고 뜻깊은 이 날을 맞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은 지금 그나마 환희와 경쟁에 훨씬 여 있다.

세상을 놀래우며 폭포처럼 쏟아지는 주체철파 주체송, 주체비로의 장쾌한 정경,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믿음을 얹으며 새겨주며 끌간데 없이 펼쳐진 대제도 간석지의 웅장한 모습, 갖가지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며 높이 끌려가는 경공업 광장들의 동음...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승리의 신심, 미래에 대한 락관을 심어주며 날마다 들려오는 화희로운 소식들, 천만군민의 뜻높은 열의와 신념이 비친 경堵그림 판과 글발들이 명절분위기를 한층 둑구어주고 거리와 거리, 집집의 창가마다에서는 기쁨의 노래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가슴흐뭇하게 털려왔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진군길을 다그쳐 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국해방기념일을 맞는 온 나라 인민들은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주시고 자기들에게 참다운 삶의 권리와 행복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께 삶과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다.

